

레드리본 에이즈 상담실

Q | 항원검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항원검사는 비용이 고가의 검사라고 하셨는데,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를 해주나요? 또 무증상기에 검사를 받아도 항체가 발견된다고 하셨잖아요. 위험한 관계후 꼭 12수만에 해야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엔 위험한 관계후 6개월에서 1년후에 항체검사를 받았어요. 에이즈항체가 1~2년 정도에 없어지거나, 숨어버리거나 하진 않겠죠?

A | 항원검사는 보조검사로 쓰입니다.

에이즈 검사는 항체검사와 항원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항원검사는 실시하는 병의원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원검사는 넘겨서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비싸며, 에이즈바이러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만 결과가 나오기에 초기응급상황이나, 신생아 검사때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항체검사는 우리 몸이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을때 이물질에 대항하는 물질인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몸에 항체가 만들어지며 에이즈로 병이 진행되어 항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주로 항체검사를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경우처럼 위험행위에 노출된지 6개월 ~ 1년 후에 검사를 받아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니 음성이란 결과를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12주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물질(바이러스)이 들어왔을때 늦게 만들어지더라도 12주에는 반드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 Q u e s t i o n

Q | 에이즈 환자의 혈액에 노출되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로 확진된 환자의 혈액이 상처난 손에 묻었습니다. 환자의 혈액은 혈당을 측정하는 정도로 소량이었고 저의 상처는 손톱아래가 갈라져 빨갛게 쓰러린 정도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쓰는 소독세에 말려지가 있어, 손의 피부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당시 환자가 에이즈로 확진된 상태가 아니라 흐르는 물에 슬쩍 씻는 정도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몇일 뒤 환자가 HIV(+) 로 밝혀졌고 western blot에서 확진되었다 합니다. 감염내과 선생님께서도 혹시 보르니 combivir(lamivudine+zidovudine) 을 한달간 복용하라 하셨는데 약의 부작용이 꽤있는 듯 합니다.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확률이 매우 낮다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A | 병원에서 환자 혈액에 노출시에는...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HIV양성인의 혈액이 자신의 상처난 손에 묻어서 걱정이 많으시며 불안하시군요. 남의 손상처가 최소한 혈액이 맺히는 정도의 열린상처였다면 감염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염된 혈액이 위와 같은 상처에 노출되었을 경우 감염확률은 0.09%입니다. 하지만 이런 확률상의 수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단 한번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처가 이물었거나 최소 혈액이 맺히는 정도의 상처가 아니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이즈바이러스(HIV)는 피부를 직접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12주후가 되는 시점에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방약과 약의 부작용에 관련된 사항은 근무하시는 병원의 감염내과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이므로 그 선생님께 문의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Q | 피부의 간지러움이 HIV 때문인지요.

저의 파트너가 HIV+ 라는걸 안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CD4 수치는 1주일쯤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3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하보아야지 정확한 감염여부가 밝혀지지만 파트너의 감염을 알고 난 뒤 저도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의 파트너의 피부가 많이 간지럽다고 합니다. 하도 긁어서 붉은 반점이 팔과 다리에 훑터가 저 있고 본인도 모르게 긁어서 가끔 피도 나옵니다. 이런 피부의 간지러움도 에이즈의 증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A | 양성판정 이후 피부관련 질환에 대하여

양성판정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 피부까지 이상이 생겨 걱정이 많으시군요. 감염인들 중 피부의 기려움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마도 질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건강이 좋아지면 이러한 증상은 사라지더군요. 그러나 일반병원의 피부과 보다는 감염내과를 통한 협진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부과에서도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와 혹시 복용하고 있는 약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정확한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겠지요? 아무약이나 먹거나 바르지 마시고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 n s w e r

Q | 초기증상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다음에 아니라 지난 2월초 경에 우연히 알게 된 모르는 사람과 술에 취해 콘돔 없이 성관계를 딱 1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소변이 자주 마려워 병원에 갔더니 질염과 방광염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2주정도 꾸준히 치료받으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5월말 경부터 다리에 붉은 반점이 여러 개 많이 났었습니다. 크기는 모기물린 것만 하고요 간지러웠습니다. 1주일정도 지나니 사라져 괜찮아졌다 했더니 또 나타나고 1주일 후에 다시 사라지고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과 엉덩이 옆구리 다리까지 생겼습니다. 한 번도 피부에 이렇게 난 적이 없었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피부과 약도 듣질 않습니다. 초기증상은 1~6주라고 알고 있는데, 노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피부에 자주 뭐가 나면 에이즈를 의심하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3개월 동안 붉은 반점이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지리에는 거뿔거뿔하게 흔적이 남고요. 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이 납니다. 감염인중에 저 같은 증상을 보인분이 혹시 있었나요? 검사만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유일한 방법인걸 알면서도 감염이 확실한 것 같아서 검사도 몇 번했고 정말 미처했습니다. 창신이 없어 두서없이 올린 글이지만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 초기증상이란 ?

2월경에 낯선 사람과 무콘돔 상태로 성관계가 있는 후 3개월 후부터 모기에 물린것만한 크기의 붉은 반점이 있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붉은 반점으로 스트레스와 걱정이 심하셨나보군요. 님께서도 알고 계시듯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몸에 나타나는 증상, 즉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심으로 확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 나타나는 초기증상은 1~6주 사이에 나타나고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피부에 무엇이 나면 에이즈를 의심하라는 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다른 원인에서도 충분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에이즈만 국한되어 표현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님께서도 2월경의 성관계로 인해서 에이즈에 국한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심이 되고 님처럼 그러한 증상이 있다고 하여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심만으로 스스로 에이즈 감염되었다 단정짓고 생활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 봅니다. 검사는 무료 익명검사가 보장되는 보건소나 우리협회(사전에 전화예약)에서 가능하며,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